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Study of Value Orientation and Home Management Strategy of Korean Urbanit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박 미 금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Jeo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Dong Eui Univ.

Prof. : Jung Sook,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Mi Kum,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문헌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understand the home management strategy to cope with rapid changing environments and to verify that how personal value orientation affect home management strategy.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또한 본 연구는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전반부로서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 관련 부분만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후반부는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함.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variables that affect the value orientation of Korean urbanite are sex, area of dwelling, degree of information using and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in case of material orientation, degree of information using in case of environmental orientation, academic career, sex, degree of information using,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in cases of fate control orientation, number of children, sex, degree of information using in case of equilibrium orientation, sex,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in case of present orientation and academic career,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in case of individualistic orientation.

Second, value orientation variables that affect overall home management strategy of Korean urbanite are material orientation, environmental orientation, fate control orientation and individualistic orientation.

Third, variables that affect overall home management strategy of Korean urbanite are age, academic career, degree of information using,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perception level of living relative to others, environmental orientation and fate control orientation and it is shown that degree of information using is domineering variable.

I. 서론

‘가치’는 인간 행동의 이면에 작용하는 일종의 철학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은 조직되고 의미가 부여되며(홍승직, 1971),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즉 가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임희섭, 1994)으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사회문화체계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면화된다. 한편 가치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다양한 가치가 서로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 가치들이 서로 경쟁적이거나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와 대립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적응은 물론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가 함께 공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두 가치간의 갈등과 긴장이 초래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간의 갈등과 긴장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대립되는 가치의 갈등과 긴장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

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 정치·경제·문화는 물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급속하고도 거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전반의 변동은 개인의 가치의식면에서도 개인주의·평등주의·물질주의·합리주의 등을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효과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가치의 갈등이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은 바람직한 가치를 선택하게 되고 이들 가치에 따라 자신의 인생관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그 결과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사람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목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반면, 목표달성의 수단이 되는 자원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목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자원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은 대립되는 목표와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체계이므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의 정신적·물질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생활관리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한국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생활관리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것은 우리의 사회·문화구조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파악하여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작업은 2000년대 한국인이 원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성향이 이러한 생활관리전략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의식을 도출하며, 국민의식 정화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기초자료, 가정교육의 담당자인 부모교육의 자료 그리고 사회교육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문헌고찰

1. 가치 및 가치지향성

Kluckhohn(1951:395)은 가치란 이용 가능한 행동의 목표·수단·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망대상에 대한 묵시적 또는 암시적 관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가치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습득되는 문화현상이며 생물학적 유전이나 개인의 창조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홍승직, 1971). 즉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일부이며 그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지배적인 신념 체계로서 역사적·지리적·문화적·정치사회적인 제 배경에 따라 변화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가치체계'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가 상호 관련되어 있는 총체를 지칭하며 '가치지향'은 바람직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

화된 개념이며(이상주, 1990), '가치관'은 특정한 가치나 여러 가치들에 대한 개인이나 사회관점·견해·생각 등을 일컫는다(김철민, 1996). 이는 가치가 어떤 사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문화적인 산물이며, 한편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체계 또는 가치지향의 변화양상은 그 시대의 사회구조나 문화현상의 변화에 따라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방이후 산업화로 인하여 또는 과학기술을 근거로 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은 전통과 근대화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상주(1990)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를 숙명주의적 자연관·도덕주의적 인간관·인정주의적 관계관·권위주의적 서열관·가족주의적 집합체관의 다섯 가지 가치지향으로 논의하고,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치혼란의 양상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도덕주의와 물질주의·평등주의와 권위주의·합리주의와 인정주의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어느 사회나 가치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사회통합을 위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라고 하였다.

견학필 등(1994)은 산업사회에서는 상승적 가치관대 하향적 가치관의 양상으로 인간 지향적 가치관대 국가 지향적 가치관·지적 미덕 대 가정적 미덕·공민적 미덕 대 자기 의존성·단체 수용성 대 개인주의·사회복지 대 개인발전·사회적 책임 대 사유재산권·심미적 미덕 대 혁신주의의 가치관이 예견된다고 하였다.

고범서(1993)는 오늘의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가치관을 인간현실주의(이념상실)·반지성주의(정신적 빈곤)·순응주의(주체성의 빈곤)·인격경시(남존여비·관존의식)·인명경시·인정편중(사고력의 劣弱성)·쾌락주의·물질주의·노동천시·이기주의·정실주의·자기위주(공동체 의식의 결여)·근시안적 시야의 13가지로 진단한 다음, 미래사회에서는 정신·지식·개인성·창의성·공동체 의식·개방성·장기적 안목·통합적 사고의 8가지 가치가 삶

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 가치들이라고 하였다.

양종희(1992)는 환경오염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의식의 사회적 기반의 확대와 함께 우리 나라 국민들간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환경주의적 가치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홍승직(1994)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가치관과의 관계에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관으로 환경 보전적 환경의식· 국가간 운명공동체적 의식· 탈 소비주의 의식을 들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가치관으로 전사회의 생활합리화 태도 및 행위· 자유주의적 가치관· 사회의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거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대립되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현대사회구조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근대적인 가치를 물질지향성(對 도덕주의지향성)· 환경주의지향성(對 경제성장주의)· 운명통제지향성(對 숙명주의지향성)· 평등지향성(對 권위주의지향성)· 현재시간지향성(對 미래지향성)· 개인지향성(對 집합주의지향성)의 가치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생활관리전략

전략이란 군대에서 비롯된 용어이나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고도의 운영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명숙, 1995).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매일 변화의 연속이므로 생활관리전략 역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필요로 한다. 생활관리란 하나의 체계로서 개인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가치· 목표· 표준에 따라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결정과 목적있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Rice & Tucker, 1986).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전 생활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변화에 적응하거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변화를 복지유지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생활관리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경제구조면에서 생산과 소비 분리에 따른 직장과 가정의 분리,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 한 시장경제의 발달,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정내의 역할 변화,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시간가치의 중요성, 경쟁위주의 출세 지향적인 직업세계 또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등에 따른 개인의 고립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특징 중 취업주부의 증가는 취업으로 인한 시간갈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전체에게 시간 및 가사노동에서의 관리 전략이 요구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가정 내· 외적인 역할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할관리전략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될 것이며, 대중소비사회에서의 제한된 자원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공적인 직업생활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즐기고 휴식하는 의미의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여가 중심적인 현대인의 생활양식은 금전 또는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적용할 수 있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생활관리라고 할 때,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의 생활관리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생활관리전략으로 가사분담관리, 가계관리, 의사소통관리, 여가관리, 시간관리, 사회관계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대인들은 어떠한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사분담관리전략 : 가사노동의 조직화는 가사노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조직화 활동으로 가족원간에 자신의 역할에 맞게 과업을 배정하고 책임을 부과하여 관리목표달성을 위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사분담화를 들 수 있다.

가사분담에 따른 가정생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가사분담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조성은, 1991; 한경미, 1991)이나 가족원의 가사분

답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채옥희, 1995) 생활만족도 또는 결혼만족도 등 가정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1993; 이미선, 1994; 문숙재 외, 1997).

가계관리 전략 : 가계는 자원, 목표 및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원들이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소비자 단위(이기춘, 1994)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정경제의 많은 부분이 가정의 외부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소득의 획득·배분·구매 및 사용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가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Gross 등(1980)은 금전은 다양한 목표달성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정의 금전관리는 가정의 가치체계를 반영하고 모든 자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Dollar(1983)는 재정관리란 가족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금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였다. Slusher 등(1983)은 자원수준이 낮은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만족스러워한다면 이는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결과라고 하였으며, Varcoe(1990)는 가족 개인이 직면하는 경제문제는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에너지 또는 금전의 부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사소통관리전략 : Gross 등(1980)은 인간체제는 정보과정화의 체계로서 가족간에 행해지는 의사소통은 자아를 발달시키며, 사회 내에서 하나의 단위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Rice와 Tucker(1986)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개인의 지각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가족원들은 각기 우선 순위가 다른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집단의 목표 일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관리는 가족체계내에서 목표달성의 기대나 수준 또는 가족원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관리전략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관리전략 : 여가는 개인이 가정·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기분전환·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

여 활동하게 되는 시간(김광득, 1994), 또는 개인의 휴식·쾌락·만족감·즐거움과 같은 삶의 질적인 면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선택하는 신체활동(모창배, 1993)으로 여가는 시간이며 활동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산업화·기계화·기술화가 촉진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여가시간이 증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과중한 일'로부터 오는 부담감 또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가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여가활동참여가 단순한 기분전환과 같은 소극적인 기능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여가활동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임수원·안우홍, 1994).

시간관리전략 : 개인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생활양식이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사용해야 할 영역이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보화 사회로의 이동이 급진전함에 따라 고도의 시간관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오늘날 창의성이 요구되는 정보화 사회에는 효율성과 시간사용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시간관리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시간은 그 자체가 자원일 뿐 아니라 화폐·에너지·공간 그리고 지식과 같은 다른 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자원이다(Rice & Tucker, 1986; 유성은, 1996).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가족과 환경자원 관리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관계관리전략 : 사회관계망은 참여자들 사이의 자원교환행동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되는 자원교환의 구조 틀로서 이를 통해 개인·가족의 일상적·위기적 대처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 정의할 수 있다(차성관, 1997). 이러한 사회관계망은 가족생활의 제 측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된다(원효종·옥선화, 1993).

과거 지역적 이동이 많지 않았던 전통사회의 사회

관계망은 대체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집단과의 일차적인 유대관계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도시화·핵가족화·빈번한 지역적 이동현상 등으로 친족집단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사회관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반면 직업생활 중심의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사람들은 직장·학교·사회단체·여가활동 등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정서적·물질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회관계관리전략은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관리전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치지향성과 생활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1) 연령 : 연령에 따른 가치지향성을 살펴보면 Bengtson(1975)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가 조부모세대보다 개인지향적인 가치성향을 나타내었으며, 물질지향성은 부모세대가 가장 강하고 조부모세대와 젊은 세대는 비슷하나 조부모세대가 조금 더 인간지향적으로 나타났으며, Belk(1985)의 연구에서도 중년기가 물질주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미·이기춘(1993)의 연구에 의하면 30세 이하의 주부의 물질주의성향이 가장 크고 31세-40세의 경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철민(1996)의 연구에서는 30대보다 40대 연령층의 성인들이 물질지향성의 가치요소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개인지향성차원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였다.

임정빈(198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성평등가치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른 생활관리전략을 살펴보면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원간의

가사노동분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 : 학력에 따른 가치지향으로 양종희(1992)의 연구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의 가치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른 생활관리전략을 살펴보면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고 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가사노동분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냈으며, 모창배(1993)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란(1997)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수 : 박미금(1984), 오경희·이정우(1988)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수에 따른 생활관리전략을 살펴보면 김지연(1994)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경미·황덕순(1990)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와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총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나 가족수는 가사분담과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사분담전략을 더 사용하거나(이정숙, 1993; 이미선, 1994)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족원간의 분담화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옥희, 1995; 조성은, 1991).

4) 성별 : 옥양련(1983)의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사회가치관이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김혜순(1995)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보면 성별은 개인의 가치지향

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생활관리전략을 살펴보면 모창배(1993)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많이 사용하며 여가참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월평균 가계소득 : 가치지향성의 경우 양종희(1992)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명숙·이정우(1995)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적은 집단이 물질지향적이고 운명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engtson과 Lovejoy(1973)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생활관리전략을 살펴보면 한경미·황덕순(199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창배(1993)의 연구에서도 소득규모가 증가할수록 여가비용이 증가하였다.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는 생활정도 즉 경제적 상황이 좋고 수입이 있는 중·노년기 남성들이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지연(1994)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많을수록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성은(1991)의 연구에서는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족원간의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mo(1988)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수입이 부인의 수입보다 많을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란(1997)의 연구에서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득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6) 거주지 : 거주지에 따른 가치지향성에 관한 양종희(1992)의 연구에서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전략을 볼 때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 중소도시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이 효율적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지에 따라 가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7) 정보활용도 : 김미정(1995)의 연구에서는 생활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주부가 생활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가정관리 전 과정에서 능력이 높았으며,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낸 김경숙(1993)의 연구에 결과를 고려할 때 정보활용도는 생활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8) 상대적비교감 : 상대적 비교감과 가치지향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득적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지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경미·이기춘(1993)의 연구에서도 중상류계층의 물질주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비교감과 가치지향성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대적비교감에 따른 생활관리전략의 경우에도 상대적비교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 소득적정도 낮을수록 예산세우기 및 계획·구매·저축 등의 가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명숙(1995)의 연구 결과에서 상대적비교감은 생활관리전략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스트레스인지도 : 스트레스인지도와 가치지향성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한편 두경자(1993)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할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미선(1994)의 연구에서도 가정내 역할긴장을 많이 경험할수록 가족원의 가사노동 분담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보면 역할긴장이 스트레스로 연장되어 가사분담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사한 연구로 이안나 등(1991)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유형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 스트레스는 생활관리전략의 영향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한국 도시인의 배경변인이 가치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이 생활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4. 한국 도시인의 생활관리전략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정의

1) 가치지향성

현재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대립되거나 현대사회구조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가치지향성 가운데 물질지향성, 환경주의지향성, 운명통제지향성, 평등지향성, 현재지향성, 개인지향성의 가치영역에서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

① 물질지향성 : 인간보다 물질에 관심을 두고 성공에 대한 척도로서 실질적 결과를 중요시하며 물질적 안전·풍요·소유·소비 등의 물질주의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② 환경지향성 :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 중심 또는 성장주의 경제관보다는 자연중심 또는 환경보전적 사고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운명통제지향성 : 인간이 환경이나 자연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이나 자연을 통제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④ 평등지향성 : 인간관계에서 개인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평등한 기회·공정한 경쟁·수평적 인간관계 등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⑤ 현재지향성 : 미래를 대비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⑥ 개인지향성 :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히 여기고 개인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2) 생활관리전략

개인 또는 가정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 도시인이 시간·가계·가사분담·의사소통·여가 및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행하는 효율적인 자원사용에 관한 관리방안을 의미한다(p.4-6 참조)

3) 주관적 변인

① 정보활용도 : 개인·가정 또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스트레스인지도 : 인간과 개인을 둘러싼 가족·경제·환경·사회관계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상적 평형상태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긴장이나 부담감을 의미한다.

③ 상대적 비교감 :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이웃이나 친구 또는 우리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3. 조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가치지향성, 생활관리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변인 중 정보활용도와 스트레스인지도는 김경숙(1993), 이윤미(199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각각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도와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치지향성은 선행연구(임정빈, 1987; 임정, 1988; 양중희, 1992; 이명숙, 1995; 이연호, 1996)를 근거로 하여 문항을 구성한 후 각영역 별 가치지향성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물질지향성·환경지향성·운명통제지향성·평등지향성·현재지향성·개인지향

성의 가치영역 문항을 선정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가치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관리전략은 선행연구(김외숙, 1991; 박미금, 1992; 이정숙, 1994; 이명숙, 1995)를 참고로 문항을 작성한 후 요인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하위영역으로 가사분담관리·가계관리·의사소통관리·여가관리·시간관리·사회관계관리의 6영역으로 구성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관리전략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척도의 영역별 신뢰도

배경변인	문항 수	신뢰도 계수	가치지향성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생활관리전략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정보활용도 스트레스정도 상대적 비교감	9 12 2	$\alpha=.82$ $\alpha=.77$ $\alpha=.84$	물질지향성	8	$\alpha=.80$	가사분담관리	6	$\alpha=.89$
			환경지향성	7	$\alpha=.81$	가계관리	6	$\alpha=.81$
			운명통제지향성	4	$\alpha=.69$	의사소통관리	6	$\alpha=.83$
			평등지향성	3	$\alpha=.63$	여가관리	5	$\alpha=.78$
			현재지향성	4	$\alpha=.45$	시간관리	5	$\alpha=.77$
			개인주의지향성	3	$\alpha=.44$	사회관계관리	5	$\alpha=.74$
			전 체	33	$\alpha=.90$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며 1인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 9월 15일부터 30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7년 11월 1일부터 15일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각각 550부 씩 총 1100부의 질문지 중 102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03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빈도·백분율·평균 표준편차·요인분석·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의 일반적 경향

1) 가치지향성의 일반적 경향

가치지향성은 <표 3>에서와 같이 4.18로 환경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명통제지향성 3.93점·개인지향성 3.17점·물질지향성 2.93점·평

등지향성 2.92점·현재지향성 2.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지향성·운명통제지향성·개인지향성은 중간점 이상이고 물질지향성·평등지향성·현재지향성은 중간점 이하로 나타났다. 물질지향성이나 현재지향성이 중간점 이하이고, 운명통제지향성·개인지향성이 중간점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명숙(1995: 5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생활관리전략의 일반적 경향

의사소통관리전략이 3.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관계관리전략은 3.65·시간관리전략은 3.58점·가계관리전략은 3.47점·가사분담관리전략은 2.95점·여가관리전략은 2.26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관리전략·사회관계관리전략·시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전체 : 1003명)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5세 미만	166(16.6)	월평균 가계 소득	150만원 미만	233(23.2)	학력	고졸 이하	514(51.5)
	35~39세	227(22.6)		150~200만원 미만	221(22.0)		대졸	376(37.5)
	40~44세	276(27.6)		200~300만원 미만	272(27.1)		대학원졸 이상	113(11.3)
	45~49세	175(17.5)		300만원 이상	277(27.7)	자녀수	1명	177(17.7)
	50세 이상	158(15.7)					2명	626(62.4)
성별	남	483(48.2)	거주지	서울	609(60.7)	3명 이상	200(19.9)	
	여	520(51.8)		부산	394(39.3)			

〈표 3〉 가치지향성·생활관리전략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변인		평균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가치지향성	물질지향성	2.93	0.69	생활관리 전략	가사분담관리	2.95	0.93
	환경지향성	4.18	0.54		가계관리	3.47	0.77
	운명통제지향성	3.93	0.57		의사소통관리	3.66	0.67
	평등지향성	2.92	0.73		여가관리	2.26	0.79
	현재지향성	2.50	0.60		시간관리	3.58	0.68
	개인지향성	3.17	0.65		사회관계관리	3.65	0.58
				전체	3.28	0.49	

간관리전략·가계관리전략은 중간점 이상이고, 가사분담관리전략, 여가관리전략은 중간점 이하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전략 중 가사분담관리전략 사용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사분담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조성은(1991), 한경미(1991)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도시인의 배경변인이 가치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 도시인 가치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표 4〉와 같다.

물질지향성은 여성일 경우($\beta=-.10$), 거주지가 서울일 경우($\beta=.17$),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을수록($\beta=.18$),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18$)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지향성은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29$) 높게 나타났다.

운명통제지향성은 학력이 낮을수록($\beta=-.07$), 남성일 경우($\beta=.11$),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22$),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beta=-.10$) 높게 나타났으며, 평등지향성은 자녀수가 적을수록($\beta=-.08$), 여성일 경우($\beta=-.08$), 정보활용도가 낮을수록($\beta=-.12$) 높게 나타났다.

현재지향성은 여성일 경우($\beta=-.11$),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beta=-.07$)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지향성은 학력이 높을수록($\beta=.11$),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16$)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물질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서울은 지역적으로 가장 시장환경이 다양한 곳이며,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 많은 정보로 인하여 소비욕구를 상승시키고 소비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 하므로서 물질지향성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에 온 지구인의 공통의 관심사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여러 매체를 통하여 획득되는 환경

〈표 4〉 배경변인이 가치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¹⁾

독립변인	종속변인		물질지향성		환경지향성		운명통제지향성		평등지향성		현재지향성		개인지향성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	-	-	-	-	-	-	-	-	-	-	-	-	-
학력	-	-	-	-	-	-	-.01	-.07***	-	-	-	-	.02	.11***
자녀수	-	-	-	-	-	-	-	-	-.08	-.08**	-	-	-	-
성별	-.13	-.10**	-	-	.13	.11***	-.11	-.08**	-.13	-.11**	-	-	-	-
월평균가계소득	-	-	-	-	-	-	-	-	-	-	-	-	-	-
거주지	.23	.17***	-	-	-	-	-	-	-	-	-	-	-	-
정보활용도	.21	.17***	.27	.29***	.22	.22***	-.15	-.12***	-	-	-	-	.18	.16***
스트레스인지도	.19	.18***	-	-	-.08	-.10**	-	-	-	-	-.07	-.07*	-	-
상대적 비교감	-	-	-	-	-	-	-	-	-	-	-	-	-	-
상수	1.22		3.26		3.46		3.65		2.69		2.24			
F비	28.0***		83.6***		16.9***		7.41***		7.80***		21.5***			
R ²	.108		.082		.067		.023		.016		.043			

관련 정보들도 현대인들에 환경지향적인 가치성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보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환경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¹⁾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운명주의적 관념이 지배적(이상주, 1990)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나 가족 구조적으로 여전히 남성 지향적인 성역할태도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의 운명적 가치관이 많이 극복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운명을 개척하려는 반숙명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지향적인 사회 문화적 압박을 덜 받는 남성들이 보다 자신의 미래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의 운명통제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여전히 불평등적인 사회적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평등주의적 가치를 더 열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여성의 평등지향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이 생활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 도시인의 생활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성을 살펴보면(표 5) 전체 생활관리전략은 운명통제지향성($\beta=.28$)·환경지향성($\beta=.19$)·개인지향성($\beta=.11$), 그리고 물질지향성($\beta=.07$) 등의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생활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가사분담관리전략은 운명통제지향성 높을수록($\beta=.20$),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beta=.25$) 높게 나타났다. 가계관리전략은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5$) 그리고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6$)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관리전략은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20$),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21$), 현재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9$),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9$) 높게 나타났다. 여가관리전략은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3$),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3$),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1$) 높게 나타났다. 시간관리전략은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4$), 그리고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

1) * * $p < .05$ ** $p < .01$ *** $p < .001$, ※ 가변인의 준거집단 : 성별-여성, 거주지-부산.

〈표 5〉 가치지향성이 생활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력

종속변인	가사분담관리		가계관리		의사소통관리		여가관리		시간관리		시간관리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물질지향성	-	-	-	-	-	-	.15	.13***	-	-	-	-	.05	.07*
환경지향성	-	-	.23	.15***	.25	.20***	.19	.13***	.18	.14***	.14	.13***	.18	.19***
운명통제지향성	.33	.20***	.22	.16***	.25	.21***	-	-	.29	.24***	.21	.21***	.25	.28***
평등지향성	-	-	-	-	-	-	-	-	-	-	-	-	-	-
현재지향성	-	-	-	-	.09	.09**	-	-	-	-	-	-	-	-
개인지향성	.21	.25***	-	-	.09	.09**	.11	.01**	-	-	.07	.08**	.08	.11***
상 수	.98		1.68		1.11		.75		1.67		1.99		1.16	
F 비	34.5***		31.1***		35.2***		15.3***		51.7***		30.5***		46.3***	
R ²	.070		.064		.132		.047		.101		.090		.179	

수룩($\beta=.24$)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계관리전략은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3$),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21$),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8$) 높게 나타났다.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 가사분담관리·가계관리·시간관리전략의 사용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명숙(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물질지향성이 가사분담관리전략과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4. 한국 도시인의 생활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 도시인의 생활관리전략에 대한 배경변인과 가치지향성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체 생활관리전략은 연령이 적을수록($\beta=-.08$), 학력이 높을수록($\beta=.07$),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42$),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beta=-.13$),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beta=.08$),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8$),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8$),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6$) 생활관리전략의 사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8개 변인의 설명력은 40.5%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별로 보면 가사분담관리전략의 경우는 자녀수가 적을수록($\beta=-.11$), 남성일 경우($\beta=.18$),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22$),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beta=.09$),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4$), 현재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7$),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0$) 가사분담관리전략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전략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beta=-.11$), 여성일 경우($\beta=-.18$),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39$),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beta=-.07$), 그리고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3$)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관리전략의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beta=-.13$), 학력이 높을수록($\beta=.14$), 여성일 경우($\beta=-.11$),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29$),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beta=-.22$), 물질지향성이 낮을수록($\beta=-.09$),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0$),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16$), 그리고 현재지향성이 높을수록($\beta=.09$) 의사소통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관리전략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beta=.20$),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32$),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beta=-.09$), 그리고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beta=.09$) 여가관리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전략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beta=.15$),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beta=.08$), 정보활용도가 높

〈표 6〉 배경변인 및 가치지향성이 생활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가사분담관리		가계관리		의사소통관리		여가관리		시간관리		사회관계관리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 령	-	-	-	-	-.01	-.13***	-	-	-	-	-	-	-.01	-.08**
학 령	-	-	-.03	-.11**	.03	.14***	.05	.20***	.03	.15***	-	-	.01	.07*
자 녀 수	-.13	-.11**	-	-	-	-	-	-	-	-	-.05	-.07*	-	-
성 별	.32	.17***	-.27	-.18***	-.15	-.11***	-	-	-	-	-.08	-.07*	-	-
월평균가계소득	-	-	-	-	-	-	-	-	.00	.08*	-	-	-	-
거 주 지	-	-	-	-	-	-	-	-	-	-	-	-	-	-
정보 활용도	.36	.22***	.53	.39***	.33	.29***	.44	.32***	.28	.24***	.24	.23***	.36	.42***
스트레스인지도	-	-	-.08	-.07***	-.22	-.22***	-.11	-.09**	-.08	-.08*	-.06	-.07*	-.09	-.13***
상대적 비교감	.13	.09***	-	-	-	-	.11	.09**	-	-	-	-	.06	.08**
물질지향성	-	-	-	-	-.09	-.09**	-	-	-.10	-.10**	-	-	-	-
환경지향성	-	-	-	-	.13	.10***	-	-	.08	.07*	.09	.08*	.07	.08**
운명통제지향성	.23	.14***	.17	.13***	.19	.16***	-	-	.24	.20***	.18	.17***	.17	.19***
평등지향성	-	-	-	-	-	-	-	-	-	-	-	-	-	-
현재지향성	.11	.07*	-	-	.10	.09**	-	-	-	-	-	-	-	-
개인지향성	.14	.10**	-	-	-	-	-	-	-	-	-	-	.05	.06*
상 수		-.16		1.62		1.79		.02		1.21		2.06		1.01
F 비		26.1***		53.9***		46.5***		59.6***		31.9***		25.8***		68.3***
R ²		.175		.239		.324		.213		.205		.150		.405

을수록($\beta = .24$),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beta = -.08$), 물질지향성이 낮을수록($\beta = -.10$),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 = .07$), 그리고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 = .20$)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관리전략의 경우 자녀수가 적을수록($\beta = -.07$), 여성일 경우($\beta = -.07$),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beta = .23$),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beta = -.07$), 환경지향성이 높을수록($\beta = .08$), 그리고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beta = .17$) 사회관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활관리전략에서 정보활용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효율적 자원 사용의 관리방안인 생활관리전략의 사용정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 생활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나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는 주부일수록 가정관리행동의 평균점수가 높아 효율적

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두경자(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영역 중 가사분담관리전략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가사분담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분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성은(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는 연령층이 젊을수록 기성세대에 비해서 평등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또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간에 평등한 가사분담관리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관리전략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소득원으로서의 남편, 가사 및 소비의 책임자로서의 부인)이 변화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개의 가정에서는 소득 및 자산 등 가정의 경제적 자원관리나 일상 소비지출의 담당자는 주부이며, 가계관리자인 주부의 입장에서는 물가변동이나 가계

관리상의 어려움을 더 체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계관리상 끊임없이 요구되는 노력 때문에 가계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관리전략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이선미(1991)의 연구 결과 및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증가로 여가비용 지출이 용이하여짐에 따라 여가참여 비율이 높아진다는 모창배(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시간관리전략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Walker & Parkhurst, 1982; 한경미, 1993; 이명숙, 1995)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사회관계관리전략의 경우 여성이 사회관계관리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의 비중이 큰 남성에게 비해서, 여성은 성격상 남성보다 친화력이 크고 동창·친척이나 이웃 또는 자녀를 매개로 한 학부모와의 유대 등 사회관계의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으므로 여성의 사회관계관리전략이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관리전략의 전체 및 하위영역별로 본 공통적인 영향변인은 학력·정보활용도·스트레스인지도·운명통제지향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활용도는 생활관리전략전체는 물론 모든 하위영역에서 제1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한 개인이나 가정의 정보수집·처리·사용 등 정보활용능력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생활관리전략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V·신문·라디오·잡지·컴퓨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는 정보관리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생활관리전략에 있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검증된 운명통제지향성은 생활관리전략 전체에서는 물론 여가관리전략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일상의 행·불행을 운수소관 탓으로 돌리려는宿命주의적인 전통적 가치의식보다는 자신의 미래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개척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운명통제지향성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케 하는 관리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적극적인 생활태도는 궁극적으로 생활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생활관리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높을 경우 효율적인 생활관리전략 활용에 장애요소로서 작용함을 의미하며, 반면에 생활관리전략이 스트레스인지를 낮추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나날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현대인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 한국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관리전략을 파악하며, 아울러 개인의 가치지향성이 생활관리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물질지향성의 경우 여성인 경우·거주지가 서울일 경우 그리고 정보활용도와 스트레스인지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지향성의 경우는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운명통제지향성의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남성일 경우·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평등지향성의 경우는 자녀수가 적을수록·여성일 경우 그리고 정보활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지향성에서는 여성일

경우와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지향성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 도시인 생활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성으로는 전체 생활관리전략의 경우 물질지향성·환경지향성·운명통제지향성 그리고 개인지향성 등이 높을수록 생활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가사분담관리전략의 경우 운명통제지향성과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계관리전략에서는 환경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관리전략의 경우 환경지향성·운명통제지향성·현재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가관리전략에서는 물질지향성·환경지향성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시간관리전략의 경우는 환경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계관리전략의 경우는 환경지향성·운명통제지향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 생활관리전략은 연령이 적을수록·학력이 높을수록·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환경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 그리고 개인지향성이 높을수록 전체 생활관리전략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보활용도는 생활관리전략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 정보활용능력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생활관리전략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TV·신문·라디오·잡지·컴퓨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의 과부하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최신 필요한 정보를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사용하는 정보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다른 과목에 비하여 응용학문이며 실천학문인 가정학은 그 교육 내용이 생활정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큰 과

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학교 과정에서만 남녀공수과목으로 가정과 교과를 이수시킬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가정과 교과의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의 연구와 개선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필수적인 과제로 사료된다.

운명통제지향성은 생활관리전략전체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점을 볼 때 자신의 인생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宿命주론적인 전통적 가치의식보다는 자신의 미래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활관리전략을 최적으로 유발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능동적인 생활자세는 궁극적으로 생활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생활관리전략의 사례를 발굴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관리전략을 개인이나 개별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성인들을 위한 가정생활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생활관리전략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스트레스인지도의 경우 경제·정치·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현대인들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스인지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생활관리전략을 적절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회의 확충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가정학 전공자의 사회적 기여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과제로 사료된다.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조사대상자가 서울과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를 확대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생활관리전략

은 그 전략의 사용정도를 측정한 것이어서 생활관리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관리전략의 내용을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견학필·문중섭·조경근·박장호(1994). 사회와 가치. 부산: 경성대 출판부.
- 2) 고범서(1993). 가치관연구. 서울: 나남.
- 3)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대 박사학위논문.
- 4)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 5) 김정미(1995). 신세대 주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및 관리행동. 숙대 석사학위논문.
- 6) 김의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7) 김지연(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이 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철민(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 행동의 관계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9) 김혜순(1995). 한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실정적 분석(II). 사회과학논총(14), 계명대학교 197-216.
- 10) 두경자(1993).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대처행동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19-234.
- 11) 모창배(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 12) 박미금(1984). 도시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 13) _____(1992).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대 박사학위논문.
- 14) 백경미·이기춘(1993).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 영향이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11.
- 15) 양종희(1992). 우리 나라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사회적 기반. 한국사회학(26), 89-120.
- 16) 오경희·이정우(1988). 도시주부의 가정경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지(2), 27-57.
- 17) 옥양련(1983). 한국도시주민의 가치관의 근대성.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18) 원효종·옥선화(1993).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76-190.
- 19) 유성은(1996). 현대여성의 시간관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20) 이기춘(1994). 가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 21)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전략·가정관리만족도. 숙대 박사학위논문.
- 22) 이미선(1995). 전문·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숙대 박사학위논문.
- 23) 이상주(1990). 해방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부. 1-36.
- 24)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5) 이안나·신효식·우희정(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7-154.
- 26) 이연호(199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행동에 관한 인과적 분석. 숙대 석사학위 논문.
- 27) 이윤미(1995). 배우자에 대한 가정내 역할기대·수행평가의 차이가 부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대 석사학위 논문.
- 28) 이정숙(1993).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 만족도. 숙대 박사학위논문.
- 29) 이정우 외(1997).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1), 15-29.
- 30) _____·이명숙(1995). 도시주부의 가치 목표 표준 및 가정관리목표달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11-21.
- 31) 임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2)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

- 활만족. 이대 박사학위논문.
- 330 _____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 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34)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나남.
- 35) 차성란(1997).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자원교환 · 지역사회자원인지 : 대인적 자원부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45-58.
- 36) 채옥희(1987). 가사노동의 조직화 및 관리자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37) _____ (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88-98.
- 38)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 갈등.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39) _____ (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변수 :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3-95.
- 40) _____ (1995).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 · 직업 ·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41) _____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42)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 43) _____ (1994). 사회발전과 한국인의 가치문제. 서울 : 일신사.
- 44) Belk, R.W.(1985). Materialism :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80.
- 45) Bengston, V.L.(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46) _____ & Lovejoy, M.C.(1973).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structure-an intergenerational analysi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6), 880-912.
- 47)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Allyn and Bacon. Inc. : Boston.
- 48) Dollar, P.G.(1983). The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nd satisfaction with those practices of female-headed and dual-headed househol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49)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New Jersey.
- 50) Kamo, Y.(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199.
- 51) Kluckhohn, C. and Others(1951). Value and vla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 Parsons, Edward A. Shils. et. al.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Havard University Press.
- 52)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e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N.Y.
- 53) Slusher, .B.J., Helmick, S.A. & Metzen, E.J. (1983).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 The relative impact of value concordance and resource adequacy. in M.M. Dunsing(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14-26.
- 54)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s and Home Economics* (14), 57-69.
- 55) Walker, K.E. & Parkhurst, A.M.(1982). Identifying differences in time manag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57-66.